

Ⅱ. 편입생 교육에 관한 연구

안 인 석

(영산원불교대학교, 수위단회전문위원)

목 차

1. 서 언	15
2. 편입생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	16
3. 현행 편입생 수학제도	16
4. 타 교단 및 특수학교의 편입생 수학제도	17
5. 타 교단 및 특수학교의 편입생제도에 대한 정리	19
6. 편입생 교육과정의 예	20
7. 편입생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21
8. 편입생 제도에 대한 의견	22

1. 서 언

수위단 교화·교육분과 전문위원회는 지난 원기82년 4월 7일 수위단 교화·교육분과 상임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회의에서 수위단회에서 거론되었던 “원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문제와 편입생들을 3년과정의 단축코스로 교역자로 양성하는 문제”에 대해연구,검토해 보라는 상임위원회의의 명을 받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원불교대학원,영산원불교대학교,원광대학교 교학대학과 서원관등에 대한 실지답사와 몇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숙의를 하였다. 편입생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사한 기초자료를 전문위원들의 연석토론을 통해 정리하고 오늘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다.

2. 편입생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

1) 고학력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학력자들의 전무출신 지원을 증가

4년제 대학교육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일반대학 졸업자들의 전무출신지원율이 높아짐에 따라 편입생 제도를 교단인력 수급을 위한 중요한 場으로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어짐

연도별 신·편입생 입학현황

연도 분류	원기77년			원기78년			원기79년			원기80년			원기81년			원기82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신입생	32	20	52	33	25	58	15	29	44	23	22	45	31	24	55	30	17	47
편입생	4	7	11	5	4	9	4	8	12	4	9	13	15	7	22	12	13	25
편입비율 (%)	11.1	25.9	17.4	13.1	13.7	13.4	21	21.6	21.4	14.8	29	22.4	32.6	22.5	28.5	28.5	43.3	34.7

2) 전무출신 양성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편입생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신입생들과 일반대학 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학문영역이 체험되고 학습능력이 배양되어진 편입생들과의 공동교육에 문제점(예를들며 신입생과 편입생간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상의 문제, 서원관 생활 내에서의 신입생들과 편입생간의 가치관의 마찰을 통한 생활교육상의 문제점 등) 예측되므로 전무출신 양성과정의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차별화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

따라서 편입생들만 별도로 단기과정의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여지가 발생됨

3. 현행 편입생 수학제도

- 1) 원불교 전무출신 지원심사에서 승인된 자로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허가
- 일반편입 -

* 2학년 편입은 ① 2년제 전문대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 ② 4년제 대학 1년이상 수료자
- ③ 개방대학 총장이 전문대학 졸업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
- ④ 방송대학 80학점 이상 취득자
- ⑤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자

- * 3학년 편입은 ① 4년제대학 2년이상 수료자
- ② 개방대학 수료자
 - ③ 방송대학 수료자
 - ④ 법령에 의하여 4년제대학 졸업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 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 학사편입 -

- *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3학년에 한하여 정원의외로 학사 편입학을 할 수 있다. 이때 학사 편입학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여야 하고 3학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을 허가한다.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② 개방대학졸업자
- ③ 방송통신대 졸업자
- ④ 독학사 학위 취득자

- 2) 현재 편입생들은 자격에 따라 학부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하여 수학한 뒤 학부생들과 함께 대학원 2년과정을 함께 수학하게됨

4. 타 교단 및 특수학교의 편입생 수학제도

- * 중앙승가대학

- 1) 대학원과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며 대학과정은 일반대학과 같은 규정에 따라 편입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음
- 2) 단 편입시 일반기준과 같으나 자체 내부규정으로 2학년 편입생은 출가 후 만 2년이상의 승랍자여야 하고 3학년은 출가후 만 3년 이상의 승랍자여야 허가가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

- 3) 기숙사 생활은 1학년때는 전원 공동생활이며 2학년 이상부터는 자유롭게 기숙을 결정하는 체제임
- 4) 복수전공제도는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선문대학교 신학대학

- 1) 대학원과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며 대학과정은 일반대학과 같은 규정에 따라 편입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음
- 2) 기숙사 생활은 자유롭게 함
- 3) 복수전공제도는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감리교 신학대학교

- 1) 대학과정은 일반대학과 같은 규정에 따라 편입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음. 대학원과정은 의무이수 과정은 아니나 대학원을 이수할때에는 목사안수에 유리한 요건이 됨
- 2) 기숙사 생활은 자유롭게 함
- 3) 복수전공제도는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침례 신학대학교

- 1) 대학과정은 일반대학과 같은 규정에 따라 편입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음. 대학원과정은 의무이수 과정은 아니나 지방회에 따라 목사안수의 기준이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원 졸업자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안수 기준에 맞추어야 함
- 2) 기숙사 생활은 자유롭게 함
- 3) 복수전공제도는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육군사관학교

- 1) 편입학제도가 없음
- 2) 복수전공제는 두지 않으며 선택과목을 통해 학부졸업후이학사, 공학사, 문학사 자격중 본인의 학점관리에 따라 하나를 택해 수여받게 됨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1) 성직자 양성과정을 학부 4년, 대학원 2년반 총 6년반의 기간을 이수케 함
- 2) 편입제도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을 두지않고 일괄적으로 1학년부터

시작하게 함

- 3) 6학년 1학기(대학원 2년차 1학기)때 사제서품 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을 치루게 되며 시험은 재시험의 기회를 준다
- 4) 복수전공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5. 타 교단 및 특수학교의 편입생제도에 대한 정리

- 1) 중앙승가대학, 선문대학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교, 침례 신학대학교는 일반대학 기준과 같은 규정으로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육군사관학교는 편입학 제도가 없고,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자격에 관계없이 편입생들을 일괄 1학년으로 입학시킴

* 중앙승가대학, 선문대학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교, 침례 신학대학교 경우에는 승가대학처럼 기존 성직자를 학생으로 받는 경우거나 또는 나머지 경우처럼(주로 기독교 계열) 교육과정과 목사안수 결정권과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양측의 고유영역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편입제도에 대한 일반적 적용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음

* 그러나 육군사관학교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교단과 같이 교육과정과 인사관리체계가 일관적인 연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현재 우리 교단이 편입제도를 일반대학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육군사관학교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첫째 : 교단목표 또는 국가목표에 충실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단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기초에서부터 충실하게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경우 가톨릭의 고유한 영성교육과 덕성교육, 종교문화의 이해 그리고 사제간의 일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교육을 위해서 제로 베이스(zero base)의 출발을 중요시한다는 점 등의 교육이념에 의해 편입생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교육소신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 2) 중앙승가대학, 전문대학교 신학대학, 육군사관학교는 대학원 진학이 의무규정이 아님.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의무규정은 아니나 진학여부가 목사안수에 유리한 조건이 되며 침례 신학대학교는 지방회에 따라 목사안수 기준이 다르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2년반(석사·박사과정)의 동안의 대학원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학위수여 여부는 졸업하고 사제 서품 후에도 계속 공부하여 수여받을 수 있음
- 3) 기숙사 생활은 전문대학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교, 침례 신학대학 등 기독교 계열 학교등은 비교적 자유로운 체제로 개방하고 있으며 중앙승가대학은 1학년때는 의무적으로 기숙하고 2학년 부터는 자유롭게 하는 체제를 사용하며 육군사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엄격한 기숙사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4) 복수전공 과정은 모든 대학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6. 편입생 교육과정의 예

- 1) 현행처럼 편입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학부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편입하여 수학한 뒤 대학원 2년과정을 거치는 방법 (4년제)
- 2) 학부의 4학년으로 입학하여 1년간은 예비과정으로 수학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법 (3년제)
- 3) 학부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원으로 입학하여 1년을 정식과정이 아닌 예비과정으로 교리전문 공부를 하게 한 후 나머지 2년간을 학부 졸업생과 정식 대학원 과정으로 수학하는 방법 (3년제)
- 4) 3년제 단설 전문대학원을 개설하여 편입생은 3년 과정으로 시행하고 학부생은 대학원 2학년으로 편입하여 2년 과정으로 시행하는 방법 (현재 3안은 정부 교육부로부터 제도의 승인 자체가 유보된 상태임)

5)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제도를 유보하고 조건에 관계없이 학부 1학년
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 (6년제)

6) 편입생은 학부생들과 분리하여 완전히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거치도
록 하는 방법

7. 편입생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본 설문지는 편입생으로서 현재 익산과 영산에서 재학중인 학생과 대학원생들
중에서 설문에 응한 22명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설 문 지 ◎

1. 편입생 제도에 대한 다음의 案중에서 찬성하는 案에 ○표를 하십시오

- 1) 편입생과 학부생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학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20명)
- 2) 편입생은 학부생들과 분리·독립 시켜서 별도의 교육기관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 (1명)
- 3) 어느 쪽도 관계없다 (1명)

2. 편입생과 학부생들의 공동 수학과정을 찬성할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공동체 교육이 교단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2) 서로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

3. 편입생들을 독립적으로 교육시키는 案에 찬성할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연한은 몇 년간이 좋겠습니까

- 1) 하향 평준화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2) 편입생에 대한 차별화 교육이 필요하다

4. 편입생 교육과정에 대한 다음의 案중에서 찬성하는 案에 ○표 하십시오

- 1) 현행처럼 편입학하여 학부생과 함께 수학한 뒤 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방법 (19명)
- 2) 학부의 4학년으로 입학하여 1년간은 학부생과 함께 공동생활하며 예비과정으로 수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법 ()
- 3) 바로 대학원으로 입학하여 1년은 정식과정이 아닌 예비과정으로 편입생 독립적으로 교리전문 공부를 하게 하고 이후 2년간을 정식 대학원 과정으로 수학하는 방법 ()
- 4)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제도를 폐지하고 무조건 학부의 1학년으로 입학 시켜 조건에 관계없이 학부 1학년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방법 (1명)
- 5) 편입생은 학부생들과 분리하여 완전히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 (1명)
- 6) 어느 쪽도 관계없다 (1명)

8. 편입생 제도에 대한 의견

편입생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전에 다음의 몇가지 문제를 먼저 지적 해 보고자 한다.

- 1) 교육기한도 중요하나 교역자 양성에 대한 교단적 지표, 철학을 정립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다시 말해 어떻게 교역자를 양성하는나의 문제에 앞서 어떠한 교역자를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단기적 효용성도 중요하나 장기적으로 교단미래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기능성도 중요하나 종교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성직자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화 기능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에서도 교단의 전통과 문화를 체계적이고도 진지하게 체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속 깊은 마음공부의 주체자로 기질변화를 이루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3) 우리 교단같이 성직자 구성유형이 다양한 교단일수록 성직교육기간중의 예비교역자들 간의 마타과정(가치관·교단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우리교단 출가교역자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단의 조직성향이 그만큼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금은 상이한 구성원들간의 가치관을 어떻게 융화시키고 교단의 목표아래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고 직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성직교육기간 중에 예비교역자 상호간에 서로의 상이한 가치관을 폭넓게 교류시키고 마타시켜서 통일적인 교단관을 확립시키고 공동체적인 유대를 속 깊게 구축시키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단의 미래와 발전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는 앞에서 편입생들의 설문에도 나타났듯이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고학력화 시대를 맞아 일반대학 졸업자들의 전무출신 지원율이 점진적으로 상승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편입생 교육에 대한 제도적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편입생들을 별도의 교육라인과 단기적인 교육과정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면에서 교단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향후 상당한 시점까지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한 현행과 같은 편입생 제도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의 교육제도속에서도 신입생과 편입생과의 공통 교육과정과 차별화 교육과정을 조화롭게,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중점적인 연구와 배려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